

국내에서 번역된 1990년대 中國當代小說의 독자 수용 양상 연구

李 赫*

目 次

- I. 머리말
- II. 독자 수용 양상을 통한 중국당대소설의 현황
- III. 번역된 중국당대소설 작품은 어떻게 소구되었나
- IV. 맺음말

I. 머리말

당대소설¹⁾은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치면서 서사담론의 측면에서 중심·거대·집단에서 주변·미시·개인적인 서사담론으로의 전환이라는 차별성을 보여준다. 1980년대 이전의 문학 즉 '17년' 문학, 문혁 문학, 신시기 문학은 당, 국가, 집단의식 등 거대담론이 소설의 서사를 지배하는 반면, 1980년대 중반이후 선봉소설, 신사실소설과 신역사소설은 거대담론을 거부하고 주변, 미시, 개인 담론을 지향하였다. 1980년대 중국 소설의 주류가 여전히 국가, 민족, 인민 등의 큰 개념을 그 출발로 삼고 있는 데 비해, 1990년대 소설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박사과정 brainstorm87@hanmail.net

1) 여기서의 당대의 의미는 당다이(當代; contemporary age)에 가까운 것으로 당대는 중국이라는 지역에 국한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이후의 시대를 의미한다. 즉 중국 사회주의 체제아래의 소설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20세기 중국문학의 흐름과 구체적인 현실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개념임을 밝혀둔다.

은 시대적인 주제로부터 관심을 돌려 극단적으로 개별화된 서사방식으로 사회 체제 밖의 유랑자인 자신들의 자유로운 정신과 반항을 표현하였다. 이는 “90년대의 상품화로 인한 급격한 사회적 변화와 지식인들의 일체화 속에서 견지되었던 일원화된 정치, 사회적 이상이 붕괴되고 다원적 문화의 틀이 형성되는 과정”²⁾ 속에서 견인된 문학담론의 변화로 귀결된다. 1990년대 중국문학의 특징은 개별 작가들의 개인화된 세계 구축으로 이루어진 다원화라고 한바 있다. 1990년대의 문학은 그 이전 시기의 문학과 무엇이 어떻게 다르고 왜 그렇게 많은 변화가 발생했으며 1990년대만의 문학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은 독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주된 문제의식이자 연구범주이다. 나아가 우리의 일반적인 독서 과정과 우리가 속해 있는 지적인 공동체, 우리의 삶의 경험들, 우리가 읽고 있는 텍스트 안에 있는 특별한 요소들, 여러 다른 것들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배우게 해 주는 범위가 넓고 흥미로우며 진보되고 있는 연구 영역이라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소설 연구는 ‘텍스트’의 본질적인 맥락만을 연구하는 방법이 주를 이루었다. ‘문학’이라는 대상은 늘 연구자의 연구방법론에 대한 물음과도 연관된다. 과연 중국 소설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중국문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 텍스트 연구가 아닌 유동하는 텍스트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국내에서는 중국당대소설을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으며, 독자들이 주요 관심을 두는 소설의 경향과 수용 양상은 어떠한지를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전통적으로 문학연구에 있어서 독자 수용 양상과 관련해서는 수용미학과 독자 반응 비평이 주가 된다. 수용미학은 수용이론, 또는 독자반응비평이라 불린다. 이전에 텍스트를 강조하던 이론과는 달리 수용미학은 독자의 문제를 중심으로 하며 독자의 역할이 결정적이다. 수용미학의 중심은 “독일이며 독자반응비평은 미국이 중심이지만 이 둘은 서로 연속성을 갖는다.”³⁾ 수용미학

2) 박정원, 「중국 當代 소설의 세대교체」, 『중국학연구』, 제24집 2003. 6, 161쪽

3) 박찬기 외 지음, 『수용미학』, 고려원, 1992, 32쪽.

은 작가·작품·독자의 삼각관계에서 독자를 특히 중요시하며 독자의 반응은 문학의 역사를 형성하는 원동력⁴⁾으로 본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수용미학이 다른 방법론과 다른 점은 작품과 독자와의 관계를 대화구조로 파악한다는 데 있다. 과거의 작품 이해는 “현재와 과거의 변증법적인 성찰”⁵⁾을 거친 현재화를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독자들이 수용미학을 받아들여 중국문학을 이해하는 데 적용하고자 할 경우, 수용미학과 독자반응비평에 대한 이해와 차이, 한계점을 확실히 구분하고 받아들여야 도움이 된다. 비교문학에 있어서 방법론은 “언제나 텍스트를 최고의 권위로 신봉하며 텍스트 내부만을 중시한다. 하지만 텍스트는 고정 불변하는 그 무엇이 아니다. 텍스트는 언제나 유동하며 흘러 다닌다.”⁶⁾

주지하는 바대로 신비평은 텍스트의 수많은 의미가 텍스트 자체에 포함되어 있다고 확신하는 데서 출발한다. 텍스트는 그 자체로 완결된 의미를 갖춘 결정체라는 믿음이다. 여기에는 독자나 작가 모두 감정적이거나 의도적인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러나 독자반응비평가들은 텍스트의 존재와 텍스트의 작용을 분리시켜 보지 않는다.

지금까지 우리는 국내에 소개된 중국소설의 주된 경향에 대해 그다지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소재에 있어서는 주로 ‘문화대혁명’에 대한 쏠림 현상이 있었고, 기법에 있어서는 리얼리즘에 대한 편향에 지겨움을 느끼기도 했다. 다이허우잉(戴厚英)의 『사람아, 사람아(人啊, 人)』로부터 위화(余華)의 『허삼관매혈기(許三觀賣血記)』, 『살아간다는 것(活着)』에 이르기까지 우리 독자들이 접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중국소설은 대부분 문화대혁명이 배경이었다. 문화대혁명이 워낙 중국 작가들의 의식 저변을 지배하고 있는 역사적 사건이자 주된 소재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했지만 이런 작품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우리 독자들도 그 희극적 역사 시기를 너무 탐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래

4) 차봉희, 『수용미학』, 문학과 지성사, 1985, 28쪽.

5) 차봉희, 위의 책, 44쪽.

6) 임대근, 「『상하이 베이비』: 텍스트의 확장과 맥락의 재구성」, 『중국현대문학』 제45호,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08, 302쪽.

서 일부러 그 이외의 소재를 다룬 작품들, 그 소재를 다루면서도 다른 예술적 수법을 차용한 작품들은 과연 국내의 독자들에게 인기가 있었을까? 근래에 이르러 쑤통의 『이혼지침서』, 『제왕의 생애』와 단편소설집 「다리 위 미친 여자」가 꽤 많은 판매고를 기록하면서 이전과는 색다른 중국소설이 한국 소설시장에도 흥행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현실로 서서히 각인되었다. 이는 1990년대 문화적 판도변화를 염두에 둔다면 대단히 중요한 인식의 전환과 구체적인 실천이 아닐 수 없다.

본 연구는 1990년대의 중국당대소설이 한국 내에서 번역·출간된 소설서적을 바탕으로 한국의 중국소설 독자들의 성향과 수용 양상을 탐구하는 데 그 주요한 목적이 있다. 이러한 탐구는 한·중 양국 문학의 교차 가능한 지점을 찾고 순문학적 보편성을 작품 선택의 제일 가치로 두면서도 어떻게든 한국의 중국소설 독자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제반 요소들이 될 수 있는가에 관한 질문을 전제로 해야 한다.

앞에서도 서술했듯이 본 연구의 목적은 1990년대의 중국당대소설이 한국 내에서 번역·출간된 소설서적을 바탕으로 한국의 중국소설 독자들의 성향과 수용 양상을 탐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을 선택하였다. “Creswell (1988/2008)은 연구문제의 특성, 탐색이 필요한 주제, 구체적인 시각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연구, 연구 참여자들이 처한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그 사람들을 연구하기 위해 질적 접근을 선택해야 한다”⁸⁾고 하였다. 따라서 질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번역된 1990년대의 중국 당대소설 독자들의 성향과 수용양상을 연구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본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문제의 특성 때문이다. 둘째, 선행연구를 고찰하는 과

7) 질적연구방법은 연구자가 연구 대상이 행위하고 생각하는 일상에 참여하거나 그 일상을 관찰하면서 연구 대상이 갖고 있는 경험 세계와 가치관을 당사자의 주관적 시각으로 이해하는 연구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질적연구방법에서는 연구자와 연구대상 간의 상호작용, 연구과정의 맥락이 연구방법에 모두 포함된다. 윤택림, 『문화와 역사 연구를 위한 질적연구방법론』, 아르케, 2004, 18쪽.

8) Creswell, J. H 지음, 조흥식·정선옥·김진숙·권지성 공역, 『질적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전통』, 학지사, 1998, 30쪽.

정에서 번역서적을 대상으로 1990년대의 중국당대소설의 독자 수용 양상을 다룬 기존의 연구⁹⁾가 부재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연구주제를 탐색하기 위해서이다. 마지막으로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들의 상황이나 현장에 접근함으로써,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이들의 전체적 맥락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가 속한 맥락 내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사회적 관계, 상징적 상호작용, 혹은 일상생활에 관해 총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질적 연구가 적합하다고 생각되어서 연구 방법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중국의 20세기 문학사에는 다양한 시기 구분법과 개념들이 있다. 보통 당대문학이라 하면 1949년 이후의 문학을 가리킴으로 필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당대소설 역시 1949년 이후의 소설을 지칭하는 바, 1949년 이후의 소설들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1949년 이후의 소설의 분량이 방대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중국 1990년대의 소설로 국한하여 국내에서 번역·출간된 양상을 바탕으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의 인문학적 연구방법에 비해 더 참신성을 강조하고 많은 현상들을 다루겠다. 즉 이를 밝혀보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일종의 문화기술지학(ethnographic)적인 방법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먼저 인터넷을 떠도는 많은 자료들, 예를 들어 웹사이트의 게시판, 블로그, 인터넷 신문기사의 독자투고, 소셜 네트워크(SNS), 학생들의 리포트 등을 들 수 있다.¹⁰⁾ 또한 오프라인에서는 1990년대 중국당대소설이 번역된 현황과 흐름 및 맥락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관련 문헌¹¹⁾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와 분석에 착수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연구자들의 학술적 저서 및

9) 기존의 연구는 단편적인 소설 연구가 대부분이고, 번역에 관련된 기술적 문제를 다룬 오순방의 「중국 근대 소설 번역과 중한 소설의 쌍방향 연구」가 같은 연구들이 추가되고 있다.

10) 이 조사를 위하여 한국의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NAVER)와 다음(DAUM)의 검색 엔진을 활용하였고, 인터넷 서점인 알라딘과 YES24의 중국서적 베스트 셀러 순위 자료를 참고하였다.

11) 최근의 관련문헌으로는 김혜준, 「한글판 중국 현대문학 작품 목록」, 『중국학논총』 제 27집, 서울: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2010년 2월. 金惠俊, 「中國現當代文學的翻譯和研究在韓國--以2000年代爲主」, 『한중언어문화연구』 제22집, 서울: 한국중국언어문화연구회, 2010년 2월을 들 수 있다.

논문을 망라적으로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 주제와 관련된 보다 현재적이고 실질적인 데이터의 수집을 위해 서울의 서점 중에서 인지도나 규모 등에서 대표성을 띤 2곳¹²⁾을 선정하여 5차례에 걸친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들 서점에 대한 방문조사에서는 판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10명의 중국당대소설 판매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국 독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중국당대소설은 어떤 것인지, 어떤 경향을 선호하는지 선정 방법과 내용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에 더해, 이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국내 독자들의 중국당대소설 수용 양상과 중국당대소설에 대한 인식과 반응을 알아보기 위하여 관찰조사와 간단한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을 전공분야가 중어중문과 여부를 떠나 일반 대학생으로 제한하였다. 비록 중국 문학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그들은 대학 교육과정을 통해 이미 중국소설에 경험해 온 집단이 아닐까? 하는 점에서 국내에서 중국당대소설의 수용 양상의 실태를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대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첫 번째 분석대상으로는 2010년 상반기 동안 10위권에 드는 번역된 중국 당대 소설의 베스트셀러 현황을 분석했고, 이를 통해 1990년대 중국당대소설의 영향력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본고에서 사용되는 베스트셀러 목록의 자료는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서점조합연합회가 공동으로 제작한 베스트셀러 순위 발표와 인터넷 서점(예스 24, 알라딘)베스트셀러 순위표를 참조했다. 베스트셀러를 둘러싼 순위 매김에 공신력이 끊임없이 의문시되고 있지만 자료의 정확도가 100%가 되지 않아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조사되고 있는 베스트셀러 통계 중 가장 많은 자료를 조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으므로 이곳에서 공동으로 제작한 베스트셀러 목록을 참고했다.

두 번째 분석대상으로는 2010년 11월 15일부터 12월 1일 동안 10명의 독자를 대상으로 참여관찰과 ‘중국당대소설 독서와 만족 설문지’를 실시해 10명의 설

12) 일반적으로 가장 대중이 많이 찾는다고 하는 광화문에 있는 교보문고와 종로에 있는 영풍문고를 선정하였다.

문지를 근간으로 해서 독자가 중국당대소설을 선택하는 기준과 독서 후 만족도와 평가는 어떠한가를 분석해 보았다. 나아가 이러한 중국당대소설을 선택한 것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이 한국 출판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연구 분석했다.

II. 중국당대소설의 현황과 독자 수용 양상

문화체육관광부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0년 출판시장 규모는 80억 달러 내외로 세계 6위권이며 신간 도서의 발행 종수는 총 4만 291종(만화포함)이며, 발행 부수는 1억 630만 9,626부로 나타났다.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발행 종수는 4.5% 감소하였고, 발행 부수는 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출판문화협회, 2010)

이 데이터는 베스트셀러에 속한 몇몇 책을 제외하고 세간의 주목을 받지 못한 책은 흔적도 없이 서점의 진열대에서 사막의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림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출판시장에서 팔리는 책과 팔리지 않는 책은 극과 극을 달린다. 국내에서 번역된 중국소설 역시도 몇 종의 대형 베스트셀러는 기형적이라 할 정도로 판매 부수가 치솟지만 베스트셀러에 오르지 못한 책은 금세 서점의 서가에서 사라지고 몇 달 뒤 헌 책방에서 찾아 볼 수 있곤 한다. 그 중에는 내용이 부실해 독자로부터 외면당한 책도 있을 것이며, 제대로 홍보를 못해 진열대조차 올라가지 못하고 서점 창고에서 포장도 풀리지 않은 채 사라지는 책도 있을 것이다.

번역된 중국도서들이 앞을 다투어 출판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국도서들은 아직도 번역 출판 점유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뒤쳐져 있을 뿐만 아니라, 상업성을 위한 출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도 전체 발행 종수(40,291종) 가운데 번역서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26.7%(10,771종)로 전년도 27.6%(11,681종)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해외 도서의 저작권 수입에 의한 국내 출판의 번역서 구성비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여

주고 있다. 전체 도서 발행 종수 중 번역서의 비중은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15%대에 머물렀으나, 번역출판 점유율이 점차 높아지면서 2000년대 이후로는 30%에 육박할 만큼 대폭 증가하였다. 즉 지난 10년 사이 번역서 발행 종수가 5천종대에서 1만 종대로 2배나 늘어나면서 그 비중도 자연스럽게 배가된 것이다. 또한 일본과 미국 등 일부 국가에 편중된 번역서 비중도 두드러지고 있다. 분야별로는 문학(2,324종), 만화(2,248종), 아동(2,137종), 사회과학(1,274종)순으로 나타났으며, 언어권별로는 일본(4,282종), 미국(3,001종), 영국(990종), 프랑스(608종), 독일(464종), 중국(379종), 동유럽(143종), 러시아(123종), 이탈리아(109종)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주요 국가별 번역 출판 현황

분야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어학	문학	역사	학습참고	아동	만화	계
총 발행 종수	703	1,055	1,899	6,017	541	3,206	1,382	1,625	8,192	1,031	2,512	7,352	4,776	40,291
번역 종수	118	548	683	1,274	216	578	340	103	2,323	202	1	2,137	2,248	10,771
번역서 비중(%)	16.7	51.9	35.9	21.1	39.9	18.0	24.6	6.3	28.3	19.5	0	29.0	47.0	26.7
일본	20	79	23	301	41	194	102	37	832	44	0	374	2,235	4,282
미국	70	216	413	623	92	280	89	22	496	50	1	642	7	3,001
영국	11	51	65	122	32	39	38	11	291	38	0	291	1	990
프랑스	2	36	13	43	7	10	21	1	144	11	0	320	0	608
독일	7	45	40	47	30	24	24	4	100	11	0	132	0	464
중국	1	48	20	58	1	8	26	20	113	29	0	55	0	379
동유럽	0	20	15	16	1	3	3	1	41	5	0	38	0	143
러시아	0	4	1	4	1	1	0	0	91	2	0	19	0	123
유럽	0	4	10	9	4	4	5	1	34	2	0	49	0	122
북·중미	4	7	14	13	2	8	3	3	22	1	0	41	4	122
이탈리아	1	3	14	6	0	2	15	1	17	0	0	50	0	109

* 기타 스페인(91), 오세아니아(85), 서유럽(74), 남미(42), 인도(37), 중동(27), 대만(25), 동남아(24), 아프리카(18), 중앙아시아(5) 순으로 나타났다.¹³⁾

위의 도표에서 보여주듯이 국내에서 번역된 중국 도서는 전체 출판 가운데

13) 본 자료는 대한출판문화협회 홈페이지-자료실에 있는 2010 출판통계 현황을 인용하였다. http://www.kpa21.or.kr/bbs/board.php?bo_table=d_total

6위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각종 매스미디어에서는 오늘도 새롭게 번역된 중국도서들이 쏟아지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는 국가별 번역 출판 현황이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그러나 중국 문학이 113건이나 번역되어 출간된 정도로 시장이 활발해 지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위화를 필두로 쏟아진 중국 당대 소설에 대한 번역은 10년이 지난 지금, 더욱 더 번역 출판에 대한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이른바 위화(余華)의 『허삼관매혈기(許三觀賣血記)』는 국내에서 번역된 1990년대 중국당대소설 가운데 베스트셀러라 할 수 있을 만큼 꾸준한 인기를 끌면서 온·오프라인 시장에서 수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베스트셀러란 ‘가장 많이 팔린 책’, ‘특정 지역에서 특정 기간 동안 최고로 많이 판매된 책’, ‘평균을 넘어선 책’, ‘어떤 기간에 최고의 매상을 올린 책’, ‘날개 돋친 책’ 이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국내의 경우 교보문고를 비롯한 대형 서점이나 각종 매체에서 매년 또는 주간별로 집계해 발표하는 순위별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르면 베스트셀러이고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제외된 책들은 일반 도서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출판시장에서 베스트셀러와 일반도서의 차이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단순한 서열’로 구분될 수 있으며 내용과는 사실상 무관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1980년대 이후 개혁 개방의 흐름 속에 정치 경제 문화 각 분야 영역 속에 많은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진다. 과거 “마오쩌둥(毛澤東)식의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강조보다도 덩샤오핑(鄧小平)을 중심으로 한 실용주의 정치 노선이 핵심을 이루면서 반우파 투쟁과 문화대혁명 때 억압당하고 정체되었던 문화적 욕구들이 한순간에 분출¹⁴⁾되었다. 특히 서구 문학사조의 급격한 유입과 많은 작가들의 복권에 이은 창작 일선으로서의 복귀 등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문학의 흐름이 조성되었다. 1970년대 후반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과거의 반우파 투쟁과 문화대혁명에 대한 역사적 기억을 문학적 서사로 되살리는 이른바 상흔문학, 반사문학 등이 주류를 이루면서 80년대 중반의 심근 문학으로 확대 발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학적 흐름 속에서 80년대 중반

14) 戴錦華 主編, 『書寫文化英雄-世紀之教的文化研究』, 江蘇人民出版社, 2000. 3쪽

이후에는 선봉소설과 신 사실소설들이 문단의 핵심으로 등장하며 80년대 소설문학은 거대 서사적 관심에서 문학과 사회에 대한 큰 관심들이 문학 속에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 문학은 새로운 전환점에 들어선다. 그것은 소련의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동구 사회주의가 붕괴되며,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 아래 문화적 다원주의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이 문단으로 유입되었다. 뿐만 아니라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추구해 나감에 따라 자본주의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 문학도 하나의 상품이 되어 철저히 시장논리를 따르게 되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문학작품도 하나의 상품이 되어 창작, 발표, 출판, 발행 등의 일련의 과정이 철저하게 시장 상황에 맞추어 출판사가 기획하여 작가들이 작품을 창작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정통문학과 통속문학의 경계가 점점 무너져갔으며 이제는 오히려 통속문학이 문단의 위기를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중국의 베스트셀러 작품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조사를 통하여 중국 문학 또는 문화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다. 베스트셀러는 문학의 질적 우수성이라는 정통 문학적 관점보다는 누가, 어떻게, 어떤 작품을 많이 읽었는지 라는 통속문학적 관점이 더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베스트셀러가 나타나게 된 사회문화적 현상을 생각해 볼 때 베스트셀러에 대한 연구는 단순히 통속문학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없다. 시대에 대한 통찰과 문학의 사회적 관계라는 측면에서 베스트셀러 작품들에 대한 연구 또한 중요한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허삼관매혈기(許三觀賣血記)』가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그것이 등장하기까지의 과정에 상관없이 독자층을 흡수하는 효과가 탁월하며, 이는 구매로 이어져 지속적인 판매의 효과를 가져왔다. 위화의 소설이 인기를 끌게 되자 중국당대소설은 하나의 유행처럼 유사한 아류작들을 양산하기도 했다. 예를 들면 위화에 관련된 책이 잘 팔리자 너도나도 앞 다투어 위화의 책을 중복 출판해 결국 독자를 식상하게 만들었으므로 책의 생명을 단축시켜 버리기도 했다. 그리하여 독자가 출판

계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상황은 객관적이고도 공정하게 책에 관련한 신간소개나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출판전문잡지나 매체가 없는 한 계속될 수밖에 없다.

2010년까지 우리나라 독자가 즐겨 읽은 중국당대소설의 속성과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0년대 중국당대소설 독서시장의 몇 가지 특징은 첫째, 근년에 없었던 인기 작가들을 대거 탄생시켰다는 것이다. 위화(余華), 쑤통(蘇童), 모옌(莫言), 류진윈(劉震雲)같은 신세대 작가들이 그 예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소설이 인문·사회과학 분야에 비해 꾸준히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셋째, 문화대혁명에 관련된 소재에서 다양한 소재로 변모했다는 점, 마지막으로 류진윈(劉震雲)의 『핸드폰(手機)』과 같은 대중소설이 강세를 보였다는 점과 연론펬(閻連科)의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爲人民服務)』와 『딩씨 마을의 꿈(丁莊夢)』과 같은 변화를 수용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내용을 담은 작품이 탄생했다는 것이다. 아래의 베스트셀러 순위는 인터넷서점 YES24¹⁵⁾의 베스트셀러 폴더에서 인용한 것이다.

<표 2 중국소설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	분류	책명	저자	출판사
1	소설	허삼관매혈기(許三觀賣血記)	위화(余華)	푸른숲
2	소설	이혼지침서	쑤통(蘇童)	아고라
3	소설	아Q정전 광인일기	루쉰(魯迅)	문예출판사
4	소설	살아간다는 것(活着)	위화(余華)	푸른숲
5	소설	폐도(廢都)	자평아오(賈平凹)	일요신문사
6	소설	핸드폰	류진윈(劉震雲)	황매
7	소설	쌀(米)	쑤통(蘇童)	아고라
8	소설	사람아, 사람아(人阿, 人)	다이후우잉(戴厚英)	다섯수레
9	소설	가랑비속의 외침	위화(余華)	푸른숲
10	소설	형제	위화(余華)	푸른숲

15) YES24 <http://www.yes24.com> 베스트셀러 집계현황을 참고 정리하였다.(2010년 12월 15일자 기준)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1위부터 10위까지 위화(余華)의 작품이 국내에서는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그의 작품이 10위 가운데 무려 4편이나 될 정도로 중국 인기 소설가 하면 ‘위화(余華)’라는 말이 떠오를 만하다. 그 뒤로 쑤통(蘇童)이나 중국 내에서도 판매금지를 불러올 만큼 에로틱했던 자평아오(賈平凹)의 폐도는 국내에서도 인기를 얻었다. 작가별 성비를 비교해 보면, 여성 작가의 작품은 단지 1종이고, 9종이 모두 남성 작가의 작품으로 단편적이지만 여성에 비해 남성 작가가 다양한 글쓰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베스트셀러는 80년대와 90년대로 나누어 중국과 한국 양쪽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작품들이 대부분이다. 이것은 중국의 베스트셀러를 국내에 번역 소개하여 국내 독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베스트셀러들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80년대 초반 문화대혁명이 끝난 후 그 상처를 치유하는 상흔문학(傷痕文學)으로서 인도주의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다이허우잉(戴厚英)의 『사람아 사람아(人啊, 人)』(廣東人民出版社, 1980년), 국내에도 『영웅문』이란 제목으로 번역으로 엄청난 판매부수를 올린 당대 최고의 베스트셀러라고 여겨지는 무협소설 진융(金庸)의 『사조 영웅전(私雕英雄傳)』(1957-1959년 『香港商報』연재), 90년대 초반 가장 많은 판매부수를 올리며 명대 시대의 금서였던 연정소설 『금병매』를 능가한다고 평가받는 자평아오(賈平凹)의 『폐허의 도시(廢都)』(北京出版社, 1993년), 건달 작가라고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 영화감독으로 데뷔까지 한 중견소설가로서 베이징 하층 시민사회의 문화심리 상태를 강렬하게 드러낸 작품을 썼던 왕쑤어(王朔)의 『건달(頑主)』(『收穫』, 1987년 6기)과 『동물은 사납다(動物凶猛)』(『收穫』, 1991년 6기), 국내에 영화 『인생』으로 널리 유행하며 국내도 방문했던 새로운 서사 언어와 서술방식을 개척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해 준 위화(余華)의 『살아간다는 것(活着)』(『收穫』, 1992년 6기)과 『허삼관 매혈기(許三觀賣血記)』(新世界出版社, 1999년),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 18개 국 언어로 번역된 반자전적인 유명한 포르노소설 또는 신인류소설이라 불리는 웨이후이

(韋慧)의 『상하이 베이비(上海寶貝)』(春風文藝出版社, 2000년)등이다.

이와 같이 1990년대 이후의 중국에서의 베스트셀러 소설들은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중국 문학시장에 지속적으로 출현하여 독자들의 관심과 소비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의 베스트셀러의 성공 과정에는 단순히 시장의 개입이란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겠지만 중국의 경제성장과 함께 변화하고 중국 문화산업의 변화양상과도 큰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문화 시장에서 공급과 수요의 일치는 소비를 요구하는 생산의 단순한 효과도 아니며 소비자의 욕구에 봉사하려는 생산자 측의 시기적인 노력의 효과도 아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두 논리, 즉 생산의 장의 논리와 소비의 장의 논리의 객관적인 조화(orchestration)에 따른 결과”¹⁶⁾이다.

중국의 베스트셀러는 영역을 좀 더 확대하면 대만이나 홍콩의 베스트셀러와는 많은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역으로 대만 홍콩의 베스트셀러가 중국 대륙의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베스트셀러는 한국의 문학시장에 번역 소개되며 한국 문학시장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되는 현상을 발생하였다. 예를 들면 戴厚英의 『人啊, 人』같은 작품은 신영복이 다섯 수레 출판사에서 『사람아 아, 사람아』라고 번역 출판하여 엄청난 판매부수를 올렸으며, 홍콩의 金庸의 『射雕英雄傳』이 국내의 통속소설 시장에서 『영웅문』으로 번역되어 무협소설에 대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이는 결국 베스트셀러를 통한 한중 문학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향후 한중 문화 또는 문학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지침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 홍콩, 대만 등의 베스트셀러 작품에 대한 충분한 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한중의 문학콘텐츠를 상호 비교하며 한국문학의 중국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중국의 베스트 작가들과 베스트셀러 작품들이 다량으로 번역되고 있으며 한국문학 또한 중국에도 점차적으로 번역되어 한중 문학 상호간의 문학적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한류문화는 영화나 가요 방면에서 단

16) 삐에르 부르디외의 저, 최종철 옮김, 『구별짓기』, 새물결, 2005, 414쪽

순 문화교류를 뛰어넘어 문학적 한류 현상도 점차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문학이 어떻게 중국 시장과 중국 독자에게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도 함께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중국, 홍콩, 대만 등지에서의 베스트셀러 연구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 한국문학의 세계화라는 큰 전략을 수립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독자 반응을 가장 직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참여관찰을 해 보았다. 다음 도표는 세 차례의 서점 방문을 통해 작성된 기록 관찰표이다. 피관찰자를 일정 정도의 거리에서 어떠한 책을 선택해서 독서하는지 또 구매한 책은 어떤 책인지 조사하였다. 조사 이후에는 연령과 직업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기 위해 몇 가지 사항을 면접의 형식으로 질문하였다. 직접적인 면접을 통해 이루어지는 질적 연구의 경우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를 자세하게 알게 됨에 따라 연구 참여자의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사전에 자세한 설명과 함께 익명성을 보장하는 구두 동의를 하였다. 또한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를 하였더라도 중단하기를 원하는 경우, 연구 참여자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동의하여 중단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다. 시간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연구 참여자의 윤리성 확보를 고려하여 모든 것은 가명으로 처리하였다.

<표 3> 서점방문 관찰표

소비자의 서점방문 관찰표

1. 관찰자: 이혁
2. 관찰일시: 11월 16일(화) 14시 00분 ~ 16시 00분
3. 관찰지역: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4. 피관찰자 특성
 - (1)성별: 여 (2)연령: 20대 후반 (3)직업: 대학생
5. 관찰내용
 - (1) 선택하여 구독해 본 책 명: 위화의 『허삼관 매혈기』, 모옌의 『사부님은 갈수록 유머러스해진다』, 류진운의 『핸드폰』
 - (2) 방문서점 체류시간: 35분
 - (3) 구매 여부: 위화의 『허삼관매혈기』만 구매

피 관찰자는 여대생으로 기록표에서 보듯이 세 권의 책을 자유롭게 들춰보다가 위화의 『허삼관매혈기』를 구입하였다. 참여관찰에서는 구입여부만 알 수 있을 뿐, 왜 이 책을 구매하게 되었는지, 평소 중국당대소설에 어느 정도의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 그 책에 관해서 독자의 반응을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미리 준비된 ‘중국당대소설 독서와 만족 질문지’¹⁷⁾를 이용하여 심층 면접을 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는 예전에 대학로에서 ‘허삼관매혈기’라는 연극을 본 적이 있었어요! 삶을 위해서 피를 팔아야 하는 그 당시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오자마자 원작을 읽고 싶었지만 미루다가 지금에서야 구매하게 되었네요. 중국소설에 대해서 배경지식이 없기 때문에 소설로서나마 간접체험을 하고 싶은데, 서점에 생각보다 책이 다양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중국소설을 선택할 때 누구의 작품인지, 저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궁금해 해요. …… 이 소설 외에는 예전에 루쉰의 광인 일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 앞으로도 다양한 중국현대소설을 읽고 싶어요.”(P. 여, 대학생)

연극을 통해 먼저 중국소설을 접하게 된 여학생은 처음에 질문지에 적힌 당대소설의 개념을 잘 알고 있지 못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면접을 시작하였다. 답변을 통해서도 인지할 수 있듯이 이 대학생은 ‘당대’라는 개념보다는 ‘현대’라는 것이 자신에게 이해하기 쉽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고, 중국의 소설가하면 ‘루쉰’이외에는 잘 알지 못했다. ‘최근에는 소설이 영화화되는 작품들이 많다는 것’을 인터넷 일반 포털 사이트에서 접한 후, 영화와 소설에도 관심이 부쩍 많아지고 있음을 피력하였다. 문학과 문화가 생산되는 만큼 소비도 우리의 당연한 몫이라는 여성의 답변을 들을 수도 있었다. 다음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남자 참여자의 참여 관찰표와 질문지의 내용이다.

17) 질문지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구독했던 소설들은 무엇인가요? 2. 어느 소설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3. 소설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4. 중국당대소설을 읽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5. 중국당대소설을 읽은 후 장, 단점은 무엇인가요? 6. 왜 이 책을 구매했나요?

<표 3-1> 서점방문 관찰표

소비자의 서점방문 관찰표

1. 관찰자: 이혁
2. 관찰일시: 11월 24일(수) 14시 00분 ~ 16시 00분
3. 관찰지역: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4. 피 관찰자 특성
 - (1) 성별: 남 (2)연령: 25세 (3)직업: 대학생
5. 관찰내용
 - (1) 선택하여 구독해 본 책 명: 위화의 『살아간다는 것』, 류전원의 『핸드폰』, 엔렌커의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 (2) 방문서점 체류시간: 50분
 - (3) 구매 여부: 위화의 『살아간다는 것』과 엔렌커의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위의 연구 참여자는 중국소설 뿐만 아니라 사회, 과학 분야의 서적에도 관심을 보였다. 이 참여자 역시 가장 먼저 위화의 책을 선택해 구독해 보았으며, 최근의 소설인 류전원과 엔렌커의 소설에도 관심을 보였으며, 약 한 시간 정도 위화와 엔렌커의 작품을 정독하였다.

“저는 한겨레신문을 즐겨 구독하는데 지면 안에 신간 책을 안내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 코너를 통해 중국 소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도 새로 나온 책들이 있을 때마다 자주 서점에 와서 독서를 합니다. 전공은 중국어와 관계가 없지만 어렸을 때부터 중국 무협지를 좋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소설에도 관심이 갖게 되더군요. 남자라면 누구나 ‘삼국지’를 읽어 보지 않았을까요? 중국소설 코너는 너무 구석에 있고, 몇 권 되지 않아 조금은 불편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소설을 통해 중국의 역사나 문화를 알고 싶어요.”(K. 남. 대학생)

위 남학생 연구 참여자와 다른 연구 참여자를 통해 우리나라 독자가 서점을 이용하는 데 문제점으로 지적한 내용을 살펴보면, ‘정보 제공이나 상담 안내가 미약하다’거나 ‘진열 상태가 무질서하여 원하는 중국 소설책을 찾기 어렵다’, ‘사고자 하는 중국 소설책이 없다’, 그리고 ‘전문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하루 몇 백 종이 서점에 쏟아져 나오

는 판국에 널리 알려진 책으로서의 베스트셀러가 판매에 유리한 조건에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지면상의 제약으로 일일이 결과를 언급하지 못했지만 개인특성인 성별·연령·직업에 따라 중국당대소설 선택과 동기에 따라 다양한 차이점을 드러냈다. 남성과 여성 모두 소설을 즐겨 읽는다는 공통점이 있었으며, 중국당대소설을 구입 시 남성은 객관적인 데이터와 평가를 중요시하는 데 반해 여성은 좀 더 주관적으로 누구의 작품인지, 저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통해 작품을 이해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령에 대해서는 20대는 중국소설 가운데 비교적 재미있고, 대중성적인 위화나 모옌, 쑤통 소설을 선호하는 데 반해 30대는 다양한 독서동기를 통해 정보와 실용성,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1990년대 소설이 아닌 1990년대 이전의 루쉰이나 라오서(老舍)등의 소설에 관심이 많았다. 그 외 제목은 중국소설 구입 시 크게 고려하지 않은 사항이었고 책을 출간한 출판사나 가격, 디자인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는 책의 제목과 표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기존의 시각과는 사뭇 다른 것으로 뜻밖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출판사는 서점에서 독자로부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제목과 표지로 일단 수용자의 눈길을 끌어 들여 내용을 살펴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때론 저자의 의도와 상관없는 다소 과장된 제목이 나오기도 하고, 그 당시 서점에서 유행하는 제목이나 베스트셀러 순위에 든 제목과 유사한 제목으로 출간되기도 한다.

여성이나 학생이 부담 없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중국소설 가운데 인기가 있는 베스트셀러를 선호하는 반면에 남성가운데 직업이 대학생인 참여자가 주로 골라 본 책들은 중국에서 신시기 소설에 해당하는 작품들로 국내에서 이미 알려진 작가, 작품 위주로 선택해서 독서하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그 가운데 위화의 작품은 관찰 조사 내내 빠지지 않을 만큼 조사대상의 사람들이 한 번씩은 선택해 볼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구매여부가 소설의 선호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국내의 독자들 가운데

데에서 30대 이상의 참여자들은 중국현대소설과 중국당대소설 모두 관심이 있었고, 20대의 대학생들은 중국 당대 소설에 대해 비교적 관심이 많음을 보여주었다.

Ⅲ. 번역된 중국당대소설 작품은 어떻게 소구되었나

현대의 대중사회는 소비의 사회이다. 보드리야르가 「후기 자본주의 사회」, 「스펙터클의 사회」, 「테크놀러지의 사회」등으로 부르는 현대의 사회를 「소비의 사회」라고 지칭한 것처럼 상품의 소비란 사용가치의 소비를 포함하면서도 그것을 훨씬 넘어선다.¹⁸⁾ 즉, 행복, 안락함, 풍부함, 성공, 위세, 권의, 근대성 등의 소비도 포함하는 것인데, 특히 이 후자에 소비의 본래의 의미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소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모든 매체를 통해 국내에 번역된 중국당대소설 작품이 어떻게 소구되었는지 여러 작가와 작품들이 많지만 선행 연구에서 인기가 많았던 위화의 작품 위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인터넷 서점 예스24의 11월간 베스트셀러 순위¹⁹⁾ 10위권 안에 든 당대 소설을 보면 다음과 같다. 1위는 위화의 『허삼관매혈기』로 2010년 1월부터 11월까지 연속으로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었고, 4위는 쑤통의 『쌀』이, 5위·6위 역시 위화의 작품으로 각각 『인생』과 『4월 3일사건』이 뒤를 이었고, 7위는 중국의 여류작가인 판샤오칭(范小青)의 『맨발의 완 선생』이, 마지막으로 10위에는 쑤통의 『촉천무후』로 베스트셀러 순위 Top10 가운데 여섯 권의 당대소설이 주류를 차지하였다. 판샤오칭(范小青)의 『맨발의 완 선생』이 2010년 최근에 출간된 책임을 제외하면 1990년대의 중국 당대소설이 한국 독자들에게 꾸준히 인기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18) 장 보드리야르 지음, 이상률 옮김, 『소비의 사회』, 문예출판사, 1992, 314쪽.

19) 11월간 베스트 셀러 순위는 인터넷 서점 yes24 사이트의 전월 판매 데이터를 기준으로 집계되었다.(2010년 12월 10일 조사)

이 같은 이유를 중국 내부에서 찾으면 1990년대에 들어 “비대해진 비효율적 공공 부문에 대해 각급 ‘단웨이’(單位)에 책정한 예산 가운데 정부가 직접 책임지는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줄이고 그 밖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단웨이’ 별로 책임 경영을 통해 해결하라는 내용의 예산 관련 개혁을 실시하였기”²⁰⁾ 때문이었다. 언론, 잡지, 출판매체들과 같은 매체개혁은 문학과 지식 담론의 판도에 직접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왔다. 이런 맥락에서 언론 출판의 운영방식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 원리에 입각한 조직개편과 상업화한 콘텐츠 개발생산으로 자구책을 모색하면서 독자들에게 잘 팔리는 책들만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문학의 입장에서 보면 위기이자 도전이었다. “문학잡지 및 문학작품의 단행본 출간 같은 문학의 사회적 유통, 출판구조 전체가 상업적 이해타산에 따라 재편되는 과정은 작가들에게 기존의 정치적·이념적 제약과는 다른 방식으로 창작의 자유를 제약했다. 작가들은 이제 쓰고 싶은 것을 쓸 수 없으며, 시장이 필요로 하는 ‘잘 팔리는’ 글을 써야만 했기 때문이다.”²¹⁾ 그 결과 남은 것은 ‘잘 팔리는 책’, 즉 베스트셀러 작품들이었다. 베스트셀러가 비록 ‘거대한 자본을 투자한 광고의 산물’로 지적되기는 했지만, 흥미와 내용적인 면에서 독자로부터 좋게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앞장에서 조사된 바 있다. 따라서 베스트셀러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재미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당시 대중이 공감하고 가질 수 있는 내용의 책이라면 독자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위화의 『허삼관매혈기』가 그러한 요건을 갖추었기에 중국당대소설 가운데 꾸준한 인기몰이를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참여관찰과 베스트셀러 순위를 통해 본 위화의 『허삼관매혈기』는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소구되었는지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번역본이 출판된 직후 이를 소개하고 있는 신문 기사를 보자. 『경향신문』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20)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중국현대문학과의 만남』, 파주, 동녘, 2006, 110쪽.

21)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중국현대문학과의 만남』, 같은 책, 111-112쪽.

“설령 목숨을 파는 거라 해도 전 피를 팔아야 합니다.”

‘피’는 곧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그에게 매혈은 목숨의 일부를 파는 일이다. 허삼관의 인생여정이 가장의 삶을 넘어 이타주의자의 삶으로 비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목숨이 가족의 밥으로 바뀌고 약으로 바뀌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그는 가족이 가난에 허덕일 때 피를 팔아서 배불리 음식을 먹여준다. 사실 다른 남자의 아이였던 큰아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만큼의 매혈도 마다하지 않는다.²²⁾

각자의 일터에서 가족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가장들의 모습 속에 허삼관의 모습이 있다. 손님을 기다리는 조바심이 역력한 포장마차 아주머니의 얼굴, 땀에 찌든 작업복을 입고 냉수로 목을 축이는 아저씨의 얼굴이 바로 우리 사회의 허삼관들이다. 혹시 일터로 나가는 가장에게 응원의 말을 잊었다면 지금 서두르자. 당신은 이 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이타주의자라고 말이다.

우리가 『허삼관매혈기』를 받아들인 거의 전적인 입장들은 ‘매혈’이라는 중국사회의 어두운 면을 꼬집으면서도 가난한 서민을 대변하는 허삼관에게 피는 ‘돈’이자 가족을 부양할 ‘무기’로 생각한다. 경제위기의 우울한 여파가 가정으로 스미고 있는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씹씹이를 줄여도 적자 가계부를 고민해야 하고 실직의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가족이 늘고 있다. 경제적인 이유로 가정이 해체되고 자살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이 시대 가장들의 어깨 위에 놓인 짐의 무게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면서, IMF 이후의 한국 사회에 독자들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와 닿는 진정성 있는 작품이 독자들로부터 반응을 이끄는 힘이 된다.

위화의 『허삼관매혈기』는 출판시장 뿐만 아니라 2003년 4월 극단 미추에 의해 국내에서는 연극으로 상연되면서 더욱 더 한국 독자들에게 가깝게 접근해 가게 된다. 연극이 상연된 후 독자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연극 허삼관매혈기는 오랜만에 매우 만족스러운 연극이었다. 연출도 잘되어 있고, 스토리도 탄탄하고...”²³⁾

22) “가족 부양 위해 피 팔아야 하는 아버지”, 『경향신문』, 2000년 4월 3일.

“공짜표가 아니었다면 스스로 찾아가서 볼 만큼 내키지 않았지만 이런 짐작을 보기 좋게 뒤떨어버린 연극 허삼관매혈기.”²⁴⁾

“지난 봄, 선배가 ‘꼭 읽어보라’ 추천해준 책 한 권이 바로 『허삼관매혈기』였는데 읽지 못하고 연극으로 먼저 만났다……웃고 떠들며 보고나서 문득 아버지를 떠올리게 한 연극 『허삼관매혈기』이젠 책으로도 만나 봐야겠다.”²⁵⁾

연극이 상연되고 나서 위화의 『허삼관매혈기』를 찾는 사람은 더욱 늘어났고, 출판량도 수직으로 상승을 이어갔다. 그 추세가 7년이 지난 지금 2010년에도 여전히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위 블로그의 내용을 보더라도 민초들의 고단하고 소외된 인간의 모습이라는 시공을 초월한 보편적인 문제가 우리 내 삶과도 닮아있는 이 소설은 마치 우리에게도 80년대까지 ‘매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IMF로 초래한 외환위기 이후에는 장기(臟器)판매도 흥행했던 사실만 보더라도 허삼관의 삶은 문화혁명기 중국의 이야기일 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 아버지들의 삶과도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겠다.

한국의 1990년대는 “사회주의권의 몰락, 민주주의의 형식적 약진, 탈산업 사회 특유의 소비 사회화, 매체 기술의 급속한 발전 등”²⁶⁾으로 특징 지워진다. 이에 비해, 중국은 1980년대부터 시작된 사회주의 체제 아래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체제의 도입이 1990년대에 와서 확대되고 급팽창되는 과정에서 외관상의 변화도 적지 않았지만 그보다는 사람들의 내면 의식의 철저한 변화가 오히려 더 큰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소설 자체의 텍스트만을 중시하고 텍스트 내부의 의미만을 연구하고 그것을 독자 수용 미학의 전부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하지만 “텍

23) 문화평론가 박민영의 블로그, <http://blog.naver.com/fwriters?Redirect=Log&logNo=60003591900> (2004년6월 28일)

24) 人生, 향기나게 살기. 줄리의 블로그, <http://blog.naver.com/zouxi?Redirect=Log&logNo=100005396083> (2004년 8월 31일)

25) 활력충전소, 해밀의 블로그, <http://blog.naver.com/bluemoon3022?Redirect=Log&logNo=80003146975> (2004년 6월 12일)

26) 김성기, 『패스트푸드점에 갇힌 문화비평』, 서울, 민음사, 1996, 78쪽.

스트를 단지 완결된 기호 체계로만 간주할 수는 없다. 물론 텍스트의 기호 체계에 대한 훌륭한 분석들이 많지만, 그것만이 텍스트 연구라고 말할 수 없다. 텍스트가 생산된 이후 어떻게 유통되고 소비되는지를 탐구하지 않는 것은 문학의 다양한 관절(關節)들을 포기하는 것이다. 텍스트의 본질적인 의미를 강조하면서 생산의 의미만을 추구하고, 원본주의(原本主義)에 빠지게 되면 더욱 풍부한 문학·문화 현상에 대한 의미의 발굴은 늦춰질 수밖에 없다.”²⁷⁾

이와 같이 『허삼관매혈기』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을 『허삼관매혈기』가 발하는 영향이라고 한다면, 독자마다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인 것은 기대지평²⁸⁾의 차이에서 오는 수용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 독자는 자신의 사전지식으로 작품을 수용한다. 작품이 주는 정보와 신호가 독자의 기대지평에 어긋날 수도 있고 일치할 수도 있다. 그 결과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이거나 거부하거나 침묵하거나 하는 반응이 나온다. 작가에 대해 분노할 수도 있고, 존경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독자의 기대지평에 따른 반응 양상은 사실은 독자의 수만큼 존재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아무튼 『허삼관매혈기』한 작품에 대한 모든 반응이란 작품의 기대지평과 독자의 기대지평간의 대화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문학작품의 이해(해석)는 끊임없이 작품과 독자 간의 소통관계로 이어지는 것이며 어떤 한 독자의 이해는 그 과정 속에 참여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문학의 전통을 이루는데 있어서 문학작품은 시대마다 새롭게 읽힌다는 동적구조²⁹⁾로 규정할 때 수용과 영향은 결코 분리할 수 없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시대마다 새롭게 읽혀지는 반응의 줄기가

27) 임대근, 「『상하이 베이비』: 텍스트의 확장과 맥락의 재구성」, 『중국현대문학』 제45호,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08, 319쪽.

28) 기대지평은 야우스의 이론 가운데 가장 핵심을 이루는 개념으로, 독자가 지니고 있는 이해력의 총화·사전지식·혹은 기대·바람·관심·필요 등과 같은 다의적인 의미로 쓰고 있으며 그 적용범위도 매우 다양한 편이다. 기대지평은 여러 가지 형태로 3분된다. 작가의 기대지평·작품의 기대지평·시대의 기대지평·독자의 기대지평·치속한 지평·새로운 지평·미래지평 등. 차봉희, 『수용미학』, 문학과 지성사, 1985, 67쪽.

29) H. R. 야우스 저, 장영태 역, 『도전으로서의 문학사』, 문학과 지성사, 1983, 306쪽.

바로 소통과정이며 중국의 당대문학사는 이 소통과정을 중심으로 기술되어야
 참된 중국 당대문학사가 만들어 진다

IV. 맺음말

본 연구는 비록 깊이는 없지만 나름대로 수용미학이 제기한 관점에서 독자 이론을 토대로 수용자 관점에서 국내에서 번역된 1990년대 중국당대소설이 독자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수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는데 있었다. 특히 문화 기술지학적 방법론을 통해 위화의 작품이 독자의 가슴속에 다양한 이야기가 수용되고 감성적인 유대로 공존하기 때문에 소설 작품에 대한 의미 부여를 통해 독자의 욕구를 충족함으로써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소 아쉬운 점은 출판사의 종사자와 번역된 책을 직접 매장에 진열해 독자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는 서점의 판매 직원의 시각이 이론적인 접근으로 끝난 것이다. 당초 계획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서점 직원과 직접 번역소설을 창조해내는 기획자의 베스트셀러에 대한 시각과 수용자의 시각을 설문과 인터뷰를 통해 비교 분석함으로써 좀 더 심층적인 연구를 하려고 했다. 신뢰도에서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지만 일차적인 기초자료로서 1990년대 중국당대 소설의 독자 수용 양상의 조사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문화적 관점에서의 중국당대소설의 독자 수용 양상은 시대적 배경이 문화대혁명과 연관되어 있는 작품이 비교적 많았다.

둘째, 스타일 관점에서의 중국당대소설의 수용은 비교적 유머러스하면서도 위화의 『허삼관매혈기』나 쑤통의 『쌀』과 같은 작품처럼 아방가르드적 예술정신을 융합시킴으로써 소설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는 작품이 선호도가 높았다.

셋째, 맥락적 관점에서의 수용은 소설이 20세기 초 전통과 대립을 전제로 하는 모더니즘의 핵심적인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으며, 독서하기에 난해하지

않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을 선호하였다.

지금까지의 수용미학은 문학작품의 제1차 조건인 독자의 이해를 개방해 놓음으로써, 문학 연구의 범위를 무한히 확대시켰다는 점을 장점으로 우선 들 수 있다. 그리고 문학과 역사를 융합한다는 종합적 사고체계를 지님으로써 문학연구의 본질에 접근해 있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문학사를 기술하는데 있어 모든 이해의 역사를 포괄적으로 다룬다고 하는 점은 수용미학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왜냐하면 증폭되는 이해의 역사를 지평변환에 따라 아무리 간략하게 축소 및 축약을 시킨다 해도 개별 작품의 이해사를 종합하고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문화기술지학(ethnographic)적 접근 방법은 독자 수용 양상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시도로 볼 수 있다.

“문학의 위기와 주변화로써 1990년대를 말하지만, 각도를 달리하여 보면 새로운 문학의 현실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다.”³⁰⁾는 김경남 교수의 말과 “국적을 부여받고 태어났으나 이미 초국적으로 존재하는 수많은 문학·문화 현상을 어떻게 재 위치시키고, 재 맥락화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때다.”³¹⁾라는 임대근 교수의 말은 동감할 만하다. 이런 의미에서 국내에서 번역된 1990년대 중국당대소설을 포함한 현재도 번역되고 있는 중국당대소설들에 대한 독자의 작품선택과 소비 취향 등을 파악함으로써 문학의 지위와 역할도 재평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0) 김경남, 「신세대 작가와 1990년대 중국소설」, 『중국학연구』, 제39집, 2007, 225쪽.

31) 임대근, 「『상하이 베이비』: 텍스트의 확장과 맥락의 재구성」, 『중국현대문학』제45호,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08, 319쪽.

참고문헌

- 余華 著, 박자영 옮김, 『세상사는 연기와 같다』, 푸른 숲, 2000.
余華 著, 백원담 옮김, 『살아간다는 것』, 푸른 숲, 1997.
余華 著, 이보경 옮김, 『내게는 이름이 없다』, 푸른 숲, 2000.
余華 著, 최용만 옮김, 『가랑비 속의 외침』, 푸른 숲, 2004.
余華 著, 최용만 옮김, 『허삼관 매혈기』, 푸른 숲, 1996.
余華 著, 최용만 옮김, 『허삼관 매혈기』, 푸른 숲, 2007.
余華 著, 최용만 옮김, 『인생』, 푸른 숲, 2007.
余華, 『許三觀賣血記』, 南海出版社, 1998.
余華, 『活着』, 上海文藝出版社, 2005.
余華, 『活着』, 長江文藝出版社, 1993.
蘇童 著, 김택규 옮김, 『이혼지침서』, 아고라, 2006.
박찬기 외 지음, 『수용미학』, 고려원, 1992.
차봉희, 『수용미학』, 문학과 지성사, 1985.
윤택림, 『문화와 역사 연구를 위한 질적연구방법론』, 아르케, 2004.
삐에르 부르디외 지, 최종철 옮김, 『구별 짓기』, 새물결, 2005.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중국현대문학과의 만남』, 동녘, 2006.
장 보드리야르 지음, 이상률 옮김, 『소비의 사회』, 문예출판사, 1992.
김성기, 『패스트푸드점에 갇힌 문화비평』, 민음사, 1996.
H. R. 야우스 지, 장영태 역, 『도전으로서의 문학사』, 문학과 지성사, 1983.
박정원, 「중국 當代 소설의 세대교체」, 『중국학연구』, 제24집, 2003.
김혜준, 「한글판 중국 현대문학 작품 목록」, 『중국학논총』, 제27집, 2010. 2
金惠俊, 「中國現當代文學的翻譯和研究在韓國--以2000年代爲主」, 『한중언어문화 연구』, 제22집, 2010. 2
김경남, 「신세대 작가와 1990년대 중국소설」, 『중국학연구』, 제39집, 2007.

임대근, 『『상하이 베이비』:텍스트의 확장과 맥락의 재구성』, 『중국현대문학』제45호,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08.

대한출판문화협회 <http://www.kpa21.or.kr>

한국서검조합연합회 <http://www.kfoba.or.kr>

네이버 <http://www.naver.com>

다음 <http://www.daum.net>

YES24 <http://www.yes24.com>

<Abstract>

A study on translated from the 1990's, the domestic Chinese contemporary readers of the novel readers' acceptability

Lee hyouk

This study focuses on how the readers accept the 90's contemporary chinese novel in the view of raising acceptable aesthetic. Especially through the ethnographic methodology, the readers can accept Yu Hua'(余華)s literary works and translated through the novel aspects of the work and the reader could look at the diversity of the novel.

There are million books of Chinese contemporary literature translated and published in Korea, which does not include 325 Chinese knight-errant novels that are under research at the moment.

For these reasons, I think, through the specialized undergraduate education, best brains can be produced and that they will be able to lead our publication world in the right direction, when 'publication' has been the basis of information industry.

Finally, I do hope this report will be surely helpful to publication planners as a useful manual and that it will encourage our publication culture to flourish.

Key Words : contemporary chinese literature, novels, readers' acceptability, research, ethnographic, publication

투 고 일 : 2011. 1. 10. / 심 사 일 : 2011. 1. 20. ~ 2011. 2. 10. / 게재확정일 : 2011. 2. 17.